

로마서 5:12-21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죽음 / 생명

M: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죽음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신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아담 시대가 아닌,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그리스도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덕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통치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력이 항상 충돌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 어떤 혜택 아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죽음

바울은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며, 따라서 그의 범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을 보기 때문에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이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고 주장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고 이 단절은 육신의 죽음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죽음은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죄로 인해 온 것이기에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의 삶인 죽음의 고통을 평생 달고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정해진 비참한 운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되돌아 간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죽음 아래 놓인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부자라도 죽고, 아무리 어리석고 가난해도 죽으니 말입니다.

생명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아담이 행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 덕분에 넘치는 은혜가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면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죄에 속한 삶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바울은 수많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고 위대하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큰 일 덕분에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을 극복했으며, 은혜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아래에서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물거품이 되었겠지만, 생명 아래에서는 그 어떠한 작은 일도 유의미하게 남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를 대접해도 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 작은 순간, 짧은 시간도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겪어야 할 죽음의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더라도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기에 때때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확실히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니 그 안에서 누리며 죄에 대해 날마다 승리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9-17

복음의 두 반응

입으로 시인하는 힘 / 복음을 거부하는 불순종

M: 하나님께서 차별없이 주시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수용합시다.

입으로 시인하는 힘

바울은 내적 믿음과 외적 고백이 모두 중요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적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우리 말에 ‘빈말’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마음의 거울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이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면에 있는 생각과 믿음이 말을 통해 나오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 고백은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고 마음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신뢰를 갖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입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기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마땅한 일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불순종

차별없이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은 파송, 전파, 들음, 믿음, 부름의 순서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로써 구원받지 못함은 불순종한 자의 책임인 것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합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계시가 있었지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일까지 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회심은 커녕 오히려 분노하며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지만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와 불순종하며 거부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사람이 얼마나 불신실한지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잡는 자와 거부하는 자,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이해, 자기 경험과 지혜, 자신만의 판단과 결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를 들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들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택함 받은 장자가 너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대로, 보여주신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관습에 얽매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3:8-13

새 계명, 구별된 삶

사랑의 계명을 따르라/ 죄를 멀리하라

M: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악한 일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십계명이 그 모형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입니다. 나를 버려 너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먼저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의 계명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사랑의 동기없이 문자 그대로만 지키고자 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고 잘잘못을 따지고 지적하는 사랑없는 모습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요 13:34)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재해석 해야합니다. 문자 그대로 액션을 취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이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율법은 단순한 가이드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기에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구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라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선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부패한 문화까지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하고 부패한 문화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세상의 문화에 물들거나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안목을 기르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빛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도적과 같이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계명으로 행동하고, 방탕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 이세상 풍조를 멀리하고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호수아 2:8-14

하나님께 몸을 던진 라합

신앙고백 / 보호와 약속

M: 바른 믿음은 바른 행위와 간구를 낳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고백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두려움으로 출발한 그녀의 신앙고백은 어딘가 부족하고 초보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배경을 볼 때 기생으로서의 삶이나 자연스러운 거짓말 등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삶이 어떠하든, 신앙고백이 부족하든 상관없이 그녀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출발한 정탐꾼을 숨겨 준 믿음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했으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정을 보내며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호와 약속

라합은 자신이 먼저 선을 베풀었으니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확실한 표를 달라고 말합니다. 두 정탐꾼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녀와 가족의 생명을 건져 줄 것이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는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보장해 주십니다. 라합의 요청이 실제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길 바라고 요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인 동시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일상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놓고 보호를 요청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 올바른 행위,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